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7.6.14.(수) 16:00 - 17:30	장 소	성북배움터(구청 3층)
참석자	9명(김경옥, 김수정, 박다혜, 손민호, 윤정섭, 이경환, 이민영, 전문수, 하장호)		
회 의 내 용			
<p>○ 회의시작(제43차 정례회의)</p> <p>- 『서울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담당부서 설명 중략</p> <p>- 담당의견 :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규칙으로 인권영향평가 심의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p> <p>○ ○○○ : 인권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부분은?</p> <p>○ ○○○ : 모든 조례가 인권, 부패, 아동,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원안동의 안에는 인권영향평가 자체가 불필요한 것도 포함한다. 공무원 징계 규칙과 관련하여 공무원 사이에서의 인권침해도 적용 될 수 있다. 일례로 성희롱·성추행등의 경우를 보았을 때 징계규정도 인권영향평가 대상이다.</p> <p>○ ○○○ : 경과조치가 201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는 이유는?</p> <p>○ ○○○ : 행자부안이 2015년 11월 19일 개정되었다. 양정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하여 서울시 25개 구청이 같이 최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그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p> <p>○ ○○○ : 2015년 11월 19일 한번 개정 되고 이번에 또 개정되는 것이다.</p> <p>○ ○○○ : 해당사항이 없어서 원안동의 하는 것도 원안동의 인가?</p> <p>○ ○○○ : 위원회는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하지 않는 것 둘 중 하나이다.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인권센터에서 처리하겠다.</p> <p>○ ○○○ :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면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p> <p>○ ○○○ : 모든 조례가 인권영향평가 대상이긴 하다.</p> <p>○ ○○○ : 조례·규칙 제개정시 우리 구에서는 4개의 영향평가를 한다. 심의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법제심의 절차로 넘어간다.</p> <p>○ ○○○ : 부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아직 인권영향평가의 기본대상범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p>			

회 의 내 용
<p>○ ○○○ : 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는 부서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p> <p>○ ○○○ :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모두가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 조례에 『주민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에 근거하여 해당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한다.</p> <p>- 보고사항 : 설명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원회 간담회(5월) 개최결과 · 인권위원 사임위원 보고 · 인권센터 시민위원 제2기 구성 · 인권 전시관 운영 · 2017년 상반기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적 경제주체 인권교육 · 2017년 상반기 인권특강 <p>○ ○○○ : 정족수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출석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논해 보겠다. 인권위원 중 3분이 사임의사를 표해서 현재 인권위원회는 17분이다. 17분 중에서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 전에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다. 참여율이 낮은 분들로 인해 정족수가 문제가 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렵다. 계속해서 참석을 못하시는 위원에 대해서 불출석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출석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의원 2분 중 한분은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우선 2분의 참여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 ○○○ : 참석률은 인권위원회의 위상과도 연계된다. 특히 구의원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인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안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듯하다.</p> <p>○ ○○○ :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성북구 의회가 추천하는 2분을 넣은 제도적 취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부분은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넓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구의원은 명확하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되어 있다.</p> <p>○ ○○○ : 1,2,3기 모두 목○○ 의원을 제외하고 구의원들의 참여가 낮았다. 어제 의회 예산결산에서 회의수당과 관련하여 남은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물론, 의원의 지적 맥락은 성북구에 위원회가 과잉이라는 점이였다. 인권위원회 참석률이 낮으면 회의수당은 계속 남을 것이고, 예산은 당연히 삭감될 것이다. 그럴 경우 4기 인권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p>

회 의 내 용

- ○○○ : 예산도 예산이지만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위원회에 도움도 되고 이전에 말씀하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출석이 어려우신 위원들이 또 누가 있는가?
- ○○○ : 출석 관련하여 뽑아보았다.
- ○○○ :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는가?
- ○○○ : 구의원분 중에 있다.
- ○○○ : 조례에 구성이 명시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임할 경우 다른 분으로 다시 위촉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 구의원일 필요는 없다. 구의회가 추천하는 분이면 된다. 이분들을 해촉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 이분들이 왜 참석률이 낮은지, 향후에도 참석이 어려운지 물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 : 위촉 과정도 이분들의 자발적 동의가 별로 없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 구의회사무국에서 배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사무국에서 관련성과 관심을 고려한 듯하다.
- ○○○ : 내가 구의원분들의 의견을 물어 보겠다. 2기 때도 사퇴의원이 있었다. 이번 3기 위원도 향후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퇴를 받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위촉하지 않으면 된다.
- ○○○ : 구의원이 사퇴할 경우 재위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 ○○○ : 나을 의사가 없는 위원은 정리를 해야 한다. 20인 이내라고 되어 있으므로 결원인원을 충원할 필요는 없다.
- ○○○ : 공석이 생길 경우 중간에 인원충원이 가능한가?
- ○○○ : 보궐이 가능하다.
- ○○○ : 임기 2년 중 잔여 임기동안 활동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다시 선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 ○○○ : 전에도 있지 않았는가?
- ○○○ : 임원을 다시 선출한 경우는 있었지만 위원을 새로 선출한 경우는 없다.
- ○○○ : 조례에 몇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 그 이하만 아니라면 보궐은 필요 없다.
- ○○○ : 20명 이내로 되어 있다. 하한은 없다.
- ○○○ : 확실히 들어가야 하는 인원은 12명이다. 각호에 명시되어 있다.

회 의 내 용

- ○○○ :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보궐은 필요 없지 않은가? 의회 추천 위원이 한명만 남으면 다시 보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가?
- ○○○ : 조례에 명시된 각 호 마다의 인원은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 ○○○ : 처음 구성할 때만 고려하면 되는 것인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 : 의결권 위임은 안 되는가?
- ○○○ : 규정에 없다.
- ○○○ : 정족수에서도 문제가 된다.
- ○○○ : 출석이 저조한 구의원 2분과 임○○ 위원 3분에 대해서 출석이 왜 어려우신지 향후 출석이 가능하신지 위원회 이름으로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떠한가?
- ○○○ : 구의원 분들은 내가 확인할 것이고, 다른 위원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 의사로 확인 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 ○○○ : 이번에는 잘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전화로 그 이유를 파악하여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그래도 못 나오신다고 하면 정리하도록 하자.
- ○○○ : 위원들의 출석을 파악한 결과 구의원 2분과 임○○ 위원을 빼면 압박을 할 만큼의 불출석자는 없다. 임○○ 위원도 수업 날짜와 겹쳐서 못 나오시는 것 같다. 다시 잘 여쭙어 보고, 날짜를 조정하는 등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 외에는 이번에 사임하신 3분이 출석률이 낮으신 분이였다.
- ○○○ : 이번에는 최대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도 출석과 관련한 주기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자.
- ○○○ : 임○○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에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능하면 오실 수 있도록 하자.
- ○○○ : 요일 때문이라면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오실 수 있도록 하자.
- ○○○ : 의원들이 관심이 없는데 참여를 한 것이라면 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 제한을 두었으면 한다. 본인이 원해서 참여해야지 배정하는 방식으로 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 ○○○ : 다음번에는 의장님과 상의하여 22분의 의원 중 인권에 관심 있는 의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겠다.
- ○○○ : 『인권도시 성북』에서 구의원이 인권에 관심이 없으면 안된다.

회 의 내 용

- ○○○ : 『인권도시 성북』은 집행부의 정책 책임이 있다. 구의원들이 책임질 필요 없다. 다만 조례가 구의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발성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 인권과 관련한 상임위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
- ○○○ : 오시지 않는데 접촉을 어떻게 하는가?
- ○○○ :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는 이야기 인가?
- ○○○ : 비슷할 것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 ○○○ : 두 의원에게는 개별적으로 물어 보겠다.
- ○○○ : 행정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인권위원회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의원분들 중 인권에 관심 있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견제한다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조례에도 구성 조항이 있는 것 같다. 위원회 활동이 구의원의 구정활동의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면 좋을 듯하다.
- ○○○ : 그러한 평가지표가 있다. 전 한춘자 시의원분이 마련했다.
- ○○○ : 이러한 위원회 활동이 구의원의 자원봉사 활동이 아닌 책무이고 평가지표에 들어가야 한다. 어쩌다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간혹 나오는 것은 의정활동을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 : 해촉의 규정이 필요하다.
- ○○○ : 규정이 있다.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 오늘 의결이 가능한가?
- ○○○ : 재적의원 3분의 2가 안되므로 불가능하다.
- ○○○ : 구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으면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학습이 될 것 같다.
- ○○○ : 지금 구의원 두 분 다 예산결산 위원으로 오늘 회의는 참석이 어렵다. 다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다.
- ○○○ : 다음 회의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달라.
- ○○○ :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출석 할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
- ○○○ : 그 확인은 위원회인가, 센터인가?

회 의 내 용

- ○○○ : 위원회이다.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출석 하는 위원에게 위원회에서 참석여부를 연락하도록 하겠다.
 - ○○○ : 지난번 간담회로 처리되어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는 제정이 된 것인가?
 - ○○○ : 이미 발의 되었다.
 - ○○○ : 발의가 된 후에도 의견을 내지 않는가?
 - ○○○ : 권고의 방식이 있는데 그 대상은 구청장이다. 의회는 아니다.
 - ○○○ : 당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다. 간담회 결과가 따로 구청장에게 전달되지 않을 듯하다.
 - ○○○ : 다 결재사항이므로 전달되긴 한다.
 - ○○○ : 반영의 여지는 없는가?
 - ○○○ : 당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 되진 않았다.
 - ○○○ : 그때는 조례의 문구에 대한 문제보다는 조례의 전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권고 보다는 제언의 형식은 가능하지 않은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 ○○○ : 당장 반영이 어렵더라도 인권위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 ○○○ : 다음번에 구청장님이 회의에 참여하신다고 하였다. 다만 조례가 수정되는 방식은 아니다.
 - ○○○ : 조례 외에도 관련 정책들, 정책 철학의 기초에 관해 이야기 하고 싶다.
 - ○○○ : 정리해서 전달해야 하지 않는가?
 - ○○○ : 엄○○ 위원님이 정리하면 좋을 듯하다.
 - ○○○ : 회의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싶다.
 - ○○○ : 미리 보낸다. 다만 회의록은 저번 회의부터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에게 미리 보내고 결재 올린다. 이후 서울시 사이트에서 최근 1년 회의록을 열람 할 수 있다.
- 마침-
- ※ 회의내용 중 주요논의 및 의견사항에 대해 요약 작성하였음.